朝鮮 後期 漢詩에 나타난 事實性에 대한 一考察
-<田間紀事>와 <己庚紀事>를 대상으로

韓 昌 勳 (全北大)

1. 서론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한시는 실학 사상의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입는 한편, 조선조의 중세적 질서와 이념의 동요라는 사회 상황을 체험하면서 여러 방향의 새로운 모색을 보인 것으로 지적된다. 정통적 한시에서의 시풍과 심미적 지향의 변모, 현실주의적 시의식의 대두, 민족적 개별성의 강조, 人情世態에 대한 적극적 관심, 민요적 요소의 수용, 그리고 중인층 시인들의 등장을 그 주요한 국면으로 보는 것이다. (김흥규, 2002 : 52-53면)

조선 후기 한시에 나타난 사실성(리얼리즘)에 대한 연구는 몇 몇의 언급이 있었으나, 단편적 지적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진재교, 박무영 등) 사실성의 구현을 문학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는 북한 학계에서도 일찍이 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사회과학원, 1989), 세부적인 고찰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불우한 처지에 빠진 비판적 사대부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판적 리얼리즘 계열의 漢詩들은 우리 문학이 남긴 주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거듭 확인되어야 한다.

현실주의적 시의식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는 丁若鏞(1762-1836)과 李學逵(1770-1834)가 대표적인 인물로 지적될 수 있다.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평가되는 한편 조선 후기 한국사상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다. 그가 남긴 방대한 문집『與猶堂全書』를 통해 우리는 정치, 경제, 법률, 지리, 경학, 언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탁월한 사상가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에는 2,500 여 수의 한시가 있어,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연암 박지원과 더불어 실학파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으로서도 주목되었다. 정약용의 한시는 그 방대한 분량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난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문학 특히 한시에 대한 연구는 홍이섭에 의한 연구 필요성 언급(1959)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번역되고 연구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그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학규 역시 24년간 유배 생활을 겪었고, 정약용과 교분을 가지면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적 영향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서도 농민들의 참상을 다룬 작품들이 주축을 이룬다. 그는 정약용의 <田間紀事>에 화답하는 <己庚紀事>를 창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파헤치는 작품들 외에도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보고 듣는 일들을 시로써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시 세계를 추구했다.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의 이해를 위해 먼저 이들의 문학론의 핵심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작품 분석에서는 '事實性(리얼리즘)'의 구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 작품들은 詩經體의 형식과 서사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事實性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약용과 이학규의 漢詩가 가진 독특한 특징을 구명하려는 노력임과 동시에 작가의 문학적 관심이 작품에 얼마만큼 투

www.kci.go.kr

영되어 형상화 될 수 있는가 하는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정약용과 이학규의 문학사상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문학, 특히 詩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잘 나타내는 형태라는 기본적 인식에 동감한다면, 일차적 연구로서 작가의 문학사상적인 면을 먼저 검토함이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약용의 경우, '조선시 선언'을 (송재소, 1986 ; 김상홍, 1985 등) 비롯한 독특하고 주체적인 문학 정신으로 하여 그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우선 정약용의 문학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應事接物' 관점에서의 文以載道論

조선 사회는 한마디로 성리학적 질서하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원래 성리학이란 주로 철학적인 문제를 관심의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조선조의 성리학은 단순히 철학적인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중세적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했다. 실학은 본래 이러한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반발로 시작된 것이나, 그 사회 질서 및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약용의 <田間紀事>의 사실성을 구명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처럼 중세와 근대의 가교적인 역할은 그의 문학론에도 드러나고 있다.

모든 문학이론의 근저에는 그 전체를 지탱하는 문학관, 인간관이 전제된다. 정약용의 경우 이는 '詩言志', '文以載道'라는 정통적 명제 속에 집약된다.

> 문은 도를 싣는 것이고 시는 지를 말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도가 세상을 바로잡고 구제하기에 부족하고 그 뜻이 텅 비어 세운 바가 없으면 비록 그것이 야단스럽고 시가 아름답다 하더라도 이는 빈 수레를 몰면서 소리를 내는 것이고 광대가 풍월을 말하는 것과 같으니 이를 어찌 전할 수 있겠는가?[1)]

위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정약용에게 있어 詩와 文 즉, 문학은 그 상위의 가치인 道와 志에 종속된다. 즉 그는 정통적인 성리학적 문학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통 성리학자들과 실학자로서의 정약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文以載道'에서의 道의 개념이 어떠한가에 있다.

성리학에 있어서 도는 천리를 가리키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수양이 중시되며 더불어 학문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정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治心, 正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문학을 하는 사람은 허술해지기 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성리학자들의 漢詩는 관념적이고 사실성이나 사회성이 거세되어 있다. 그러나 정약용은 도의 체득과정에 대한 인식이 이와 다르다. 그에 의하면 '應事接物함'으로써만이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여기서의 事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는 것들이며, 物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의 대상을 가리킨다. 이 때의 物은 자연물일 수도 있고, 당시의 사회

---

1) <西園所遺稿序> '文以載道。詩言志者也。故其道不足以匡濟一世. 而其志枵然無所立者。雖其文嘲轟雜放而詩藻麗。是猶驅空車以作聲。而倡優談風月也。何足傳哉。'

www.kci.go.kr

제도일 수도 있다.

그의 '물에 접한 후에 경이라는 명칭이 생기고 일에 응한 후에 의라는 명칭이 확립되는 것이니 접하지 않고 응하지 않으면 경과 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應事接物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약용은 理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主氣論的 입장에 있었던 것 같으며 經學에서도 이에 대응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 그의 새로운 詩經論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조선조 사회의 제도적 모순을 유배지에서 應事接物하게 된 정약용은, 각종 제도가 잘못됨으로써 빚어진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농민들의 토지 상실과 궁핍한 생활임을 직시하고 이를 <田間紀事> 등의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고발, 이의 대책을 무언중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작품의 성격과 함께 그의 작시 태도를 잘 보여준다.

2) 風의 재개념화를 통한 詩經論

정약용은 앞서 논의된 '應事接物 관점에서의 文以載道論'로서의 문학관을 견지하고 있었는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48세때 정조에게 올린 『詩經講義』에서 그 구체적 일면을 보인다. 정약용은 시의 전범을 시경으로 인식하였다. 『詩經』의 의의가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와 절제된 형식과 고담질박한 감수성의 전범이었으며, 의식의 측면에서는 인륜을 선양하고 우세휼민하였으며 당대의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경학에 조예가 깊어서 여러 경서들에 대해 광범한 고증적 탐구와 절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 성과의 일부인 시경론은 그릇된 사회 정치적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비판의 언어로서 시의 존재 의의를 설명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詩經』 해석에서 주자가 말하듯 감화의 자료로서 성립된, 따라서 도덕적 패란과 악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이와 달리 그는 『詩經』의 작품들이 이른바 變詩이건 正詩이건, 風이건 雅,頌이건 모두 도덕적 정치적 당위의 실현을 향한 능동적 의식의 소산으로 보았다. (김흥규, 1982 : 194면)

『詩經』의 이해와 朱子說에 대한 체계적 비판을 위한 가장 긴요한 문제는 國風에서의 소위 風의 의미였다. 주자는 風을 민속가요라고 보았는데, 이러한 해석은 『詩經』의 시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정약용은 風을 하나는 교화한다는 뜻, 또 하나는 풍자한다는 뜻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에 대응하는 두 가지 음이 있으니, 그들이 가리키는 바는 아주 달라서 서로 넘나들 수 없다. 위에서 풍으로 아래를 교화시키는 것은 風敎이며 風化이며 風俗이니, 그 음은 平聲이 된다. 아래에서 풍으로 위를 찌르는 것은 諷諫이며 諷刺요 諷諭이니, 그 음은 去聲이 된다.[2)]

위 내용은 한마디로 '上以風化下 下以諷刺上'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약용은 『시경』을 정치사회의 비판적 언로로서 중시하여 上以風化下의 교화론적 도구로서가 아니라 下以諷刺上의 비판적 언어로서 파악한 것이다. 그리하여 시를 사회악에 대한 풍자와 고발을 통하여 징계

2) 『詩經講義』 '風有二義亦有二音, 指趣迥別不能相通. 上以風下者, 風敎也, 風化也, 風俗也, 其音爲平聲. 下以諷刺上者, 諷諫也, 諷刺也, 諷諭也, 其音爲去聲.'

www.kci.go.kr

의 거울로서 사회 개혁의 공구로서 민중의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능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 구도는 정치지향적인 것으로서, 사회 신분상의 在下者에 의해 통치자가 諷諫, 批判되는 특징을 지니게 되는데 그의 소위 '社會詩'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개인의 이해에 연유되어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예술적인 개인 문학을 배척하고 오로지 개인의 경험과 민중의 어려움과 현실 사회를 소재로 하여 사실주의 기법으로 공리적인 면을 추구했다. 시가 예술적 성취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사회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리적인 시를 쓰면서 앞서 이야기된 자신의 시론을 실천했다.

정약용이 『시경』을 풍자의 비판적 언어로 재인식하고 이에 따라 시를 창작할 때 그 전범을 삼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데,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관찰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당대의 현실을 정확히 비판, 풍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자연히 그의 작품에는 사실성이 구현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약용의 『시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필연적으로 그의 작품에 사실성의 구현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꽃·나무·새·짐승·벌레 등 할 것 없이 모두 화법의 묘리에 맞아서 섬세하고도 생동성이 강하다. 저 서투른 화가들이 모지라진 붓에다가 먹물만 듬뿍 찍어서 기괴하게 되는 대로 휘두르면서, 뜻만 그리고 형은 그리지 않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작품과는 대비할 바가 아니다. 윤공은 언제나 나비, 잠자리 같은 것들도 손에 잡아들고 그 수염, 눈썹, 털, 고운 맵시 등의 섬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는 그 모양을 그리되 꼭 실물을 닮은 뒤에라야 붓을 놓았다. 이를 보더라도 그가 그림에 얼마나 정력을 들였으며 애를 썼는가를 짐작할 만 하다.[3)]

이것은 윤용이란 사람의 화첩에 발문으로 쓴 글인데,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고', 그것을 '정확히 그려야 한다'는 정약용의 예술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위에서 '뜻만 그리고 형은 그리지 않는' 화가들을 비판한 것은, 대상을 보고 느낀 작가의 생각에 따라서, 작가의 주관에 따라서 객관적인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즉 일차적으로는 사물의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며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리려는 대상이 작가와 대립해 있는 현실의 경우, 현실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 현실의 기본적인 양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현실의 일부분만 보고서 그것을 전체로 착각하거나, 일시적인 사회 현상이 자기의 생각과 우연히 일치할 때 그것을 기본적인 구조라고 주장하여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대상을 정확히 관찰하지 못한 셈이 된다.

요컨대 정약용은 『시경』을 자기 나름의 철학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風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 『시경』의 언어를 비판적 언어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이해는 그의 시작 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나름의 독특한 '관찰문학론'[4)]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곧 그의 작품

---

3) 「跋翠羽帖」 '所作花木翎毛蟲豸之屬。皆逼臻其妙 森細活動。非粗夫笨生把禿筆瀋水墨。謬爲奇怪。以畫意不畫形自命者。所能磬比者也。尹公嘗取蛺蝶蜻蛉之屬。細視其鬚毛粉澤之微 而描其形。期於肖而後已。卽此而其精深刻苦可知也。'

4) '관찰문학론'이란 용어는 김남천을 논한 김윤식의 글에서도 보이는데 '고발론'에서부터 시작하는 그의 일련의

www.kci.go.kr

의 가장 큰 특징인 사실성을 구현 시키는데 그 핵심적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3) 情의 강조에서 사실주의 문학관으로

이학규의 경우는, '시는 마음속에 감동 되어서 밖으로 사무쳐 나타나면 그만이다.'[5]는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약용과는 다소 다른 위치에 있다. 文以載道論을 벗어나 특히, 심중에 있는 감정을 문제 삼는 경향이 강하다. 그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정신이 쏠려서 시를 지으면서 또 고치는데, 이를 마치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만나고, 목마른 자가 마실 물을 만난 듯이 몰두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계기에 촉발되어 충동적으로 작시에 전력 투구하고, 또한 거의 본능적인 욕구인양 탐색하게 되는 경우는 분명 억제할 수 없이 분출되는 情의 세계를 시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이학규가 情의 발로를 곧 詩라고 하는 문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원철, 2005)

결국, 문학론에서는 상반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시인이 어떻게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을 내놓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문제와 사실주의 창작 기법의 이론 문제 두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즉 이학규의 유배 체험과 유배 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정약용과의 정신적 교류가 그의 작품 세계를 변모시켜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학규의 시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당시 민중들의 정서도 수용되는 등 폭넓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3. <田間紀事>와 <己庚紀事>의 사실성

정약용 한시의 성격을 대표하는 연시 <田間紀事>는 그가 강진에 유배되어 있던 1809년에 쓰여진 것으로 詩經體의 敍事詩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이 시편들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문을 적어놓아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다.

기사년에 나는 다산 초당에 머물고 있었다. 이 해에 큰 가뭄이 들어 지난해 겨울부터 봄을 거쳐 금년 입추에 이르기까지 붉은 땅이 천리에 이어졌다. 들에는 풀 한포기 보이지 않았고 유월초에는 유랑민들이 길을 메워 눈뜨고는 차마 볼 수 없는 형상이어서 살 의욕마저 잃어버린 것 같았다. 생각건대 나는 죄를 지은 몸으로 멀리 유배된 몸이라 사람축에 끼이지도 못하는 처지였다. 오매초를 조정에 바치려 해도 방도가 없고 유민도 한 장 바칠 수 없었다. 때때로 내가 본 것을 적어서 시를 지었다. 처량한 쓰르라미나 귀뚜라미와 더불어 풀밭에서 슬피 우는 것과 같은 시들이지만, 성정의 올바른 것을 구해서 천지의 화기를 잃지 않으려 했다. 오랫동안 써 모은 것이 몇 편 되기에 이를 <田間紀事>라 이름했다.[6]

정약용은 유배지의 흉년을 좌시하지 않고 백성들의 참상을 4언시로 절실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던 것이다. 이는 백성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동일시 할 수 있었던 정약용의 성

논의들은 정약용, 이학규 문학론과 유사한 점을 많이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윤식(1984:205-256면).

5) 「與」, '詩 ... 要其感於中而達於外而已也.'

6) 己巳歲。余在茶山草菴。是歲大旱。爰自冬春。至于立秋。赤地千里。野無靑草。六月之初。流民塞路。傷心慘目。如不欲生。顧負罪竄伏。未齒人類。烏昧之奏!階。銀臺之圖莫獻。時記所見。綴爲詩歌。蓋與寒蟬冷蚓。共作草間之哀鳴。要其性情之正。不失天地之和氣。久而成編。名之曰田間紀事。

www.kci.go.kr

정과 이를 이론적으로 받쳐주었던 '詩經論'을 중심으로 한 문학관이 합치되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낙네들이 쑥을 캐어 죽을 쑤어먹는 정경을 그린 <采蒿>, 가뭄으로 모를 이양할 수 없게 되자 모자리의 모를 뽑아 버리며 통곡하는 슬픔을 그린 <拔苗>, 가뭄으로 논에다 메밀을 대신 뿌리라고 하면서 메밀 종자를 착복한 현령을 풍자한 <蕎麥>, 보리죽을 쑤어 먹기도 어려운 흉년의 서러움을 묘사한 <熬麩>, 탐관오리를 승냥이와 이리로 비유한 <豺狼>, 남편은 아내를 어머니는 자식을 버리고 떠나 버리자 어린 남매가 어머니를 찾아 방황하는 것을 그린 <有兒>, 이상 6편으로 되어 있는 <田間紀事>는 시와 산문의 중간적 입장에서 인물과 사건을 지니고 있는 서사적 성격의 한시이다. 이런 형식상 이유로 그의 시는 종래 일반의 한시와는 다르게 사실성의 구현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사실성의 기저에는 작가의 비판성과 합리성이 깔려 있다.[7)]

한편 이학규는 정약용의 <탐진악부>에 자극되어 <영남악부>를, <탐진농가><탐진어가><탐진촌요>를 보고 <강창농가><남호어가><상동초가>를, <전간기사>를 보고 <기경기사>를 짓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기경기사>는 16편의 연작시로 유배지 김해의 사회 현실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여 당대의 복잡다단한 실상을 한층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다. 허울 좋은 통치 구조와 행정 체계의 난맥상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모순을 실감있게 포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민의 고통은 천재가 아니라 결국은 체제 모순으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선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심각성이 있고, 이 연작시를 관통하는 주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진재교, 2001)

돌이켜 보건대, 내가 처한 곳 또한 영외도 곧 천재와 백성의 고통은 대략 같은데, 홀로 가슴치며, 길게 탄식만 하고 뜻을 묶어 두어 말하지 않음으로써 천재와 민막 가운데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권장하고 징계삼을만한 것들을 모두 사라지게 하여 전하지 아니한다면 애석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듣고 본 바에서 시정과 풍교에 관한 일들을 모아 열 몇 개를 만들었다. 시로써 풍간하여 읊고 서로는 자세히 기록했으니, 기사년 12월에 시작하여 무오년 초봄에 마쳤다. 이름하여 <기경기사>라 하고, 탁옹(정약용)에게까지 다다르게 하였으니, 전날의 탁옹의 시가 죽 돌아서 나에게 보여지는 것과 같게 한 것이다.[8)]

곧 영남과 호남의 사정이 비슷한데도 정약용과 이학규 자신의 현실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말하고 반성함을 토로한다. 이에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기경기사> 16수를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는 당시의 부패한 집권 세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약용, 이학규에 의해 일정한 기간을 걸쳐 동일한 경향의 작품들이 창작된 것은, 곧 정약용의 문학관이 이학규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의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엥겔스에 의하면 이러한 사실성은 '전형성'과 '묘사의 디테일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과학원, 1989) 이런 개념은 서구적이며, 산문에 많이 적용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문학에 있어서의 사실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사실성의 구현에 이어서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실을 전부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典型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전형적 인물, 전형적 환경의 창조를 통해 작가는 그 시대 현실의 전체적인 양상을 대표시키는 것이다. 정확한 전형을 창조한다는 말은

7) 비판성과 합리성은 주로 산문 정신을 이루는 요소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약용의 경우 사대부라는 나름의 성격 때문에 그의 근대적 사상을 한시를 통해 발현해야 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8) '顧余所處止。亦惟嶺外。則天災民瘼。蓋略同焉。獨擣心永嘆。齎志泯默。使夫天災民瘼之。可警可述可勸可懲者。悉泯而不傳。爲可惜也。仍就所聞見。撮其事有關於時政風敎者。得十數條。詩以諷詠之。序以詳述之。始作于己巳季冬。斷手于庚午孟春。命之曰己庚紀事。以寄伯津。令轉示于學篋。以達于薝翁。亦如前日。薝翁之詩之。委曲示余者矣。'

www.kci.go.kr

현실을 개괄하는 능력을 말하고, 이 능력은 현실을 정확히 관찰한 데서만 얻어질 수 있다. 묘사의 디테일성은 소재의 다양화, 다양한 시어의 구사, 서경적 묘사, 인물 성격의 묘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런데 전형성이나 디테일성 등은 주로 산문 영역에 있어서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한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리라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른 한시 즉 서정시로서의 한시의 경우에는 그 개념의 적용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전간기사><기경기사>를 포함한 서사적 한시 특히 시경체의 한시에의 적용은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 이는 앞 장에서 논의되었던 작가의 탈중세적인 의식이 작품화된 것이며 산문정신의 특징으로만 보였던 비판성, 합리성 등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태도는 시, 소설 등의 형태상 특징 보다는 서정, 서사 등의 내용상 특징을 더욱 주목한 결과이기도 하다. 오히려 문제는 이런 개념들이 서구적이며 근대문학을 설명하면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인데 이는 보다 성숙된 연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며, 사실성의 문제에 일찍부터 주목하여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드러난 북한에서의 문학연구 업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1) 인물과 환경의 전형성

조선 후기 사회의 기본 모순의 심화는 백성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뒤흔들고, 그 여파로 백성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한다. 이런 사회의 변화는 문학의 변화와도 상관되는데, 특히 서사적 형상화에 많은 관심을 두게 한다. 이 경우 시의 내용은 구체화되면서 더러는 사건 자체가 작품에 흡수되어 점차 한시에서도 서사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진재교, 2001)

<전간기사>와 <기경기사>에서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쳐 고난을 겪는 농민이 그 전형적 모습을 그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采蒿采蒿。匪蒿伊莪。 다북쑥 캐네, 다북쑥 캐네. 다북쑥 아니라 새발쑥이네.
群行如羊。遵彼山坡。 양떼처럼 떼를 지어 저 산등성이 넘어가네.
靑裙偊僂。紅髮俄兮。 푸른 치마 붉은 머리 허리 굽혀 쑥을 캐네.
采蒿何爲。涕滂沱兮。 쑥을 캐어 무엇 하나 눈물만 쏟아지네.
瓶無殘粟。野無萌芽。 살독엔 쌀 한 톨 없고 들엔 벼 싹 다 말랐네.
唯蒿生之。爲毬爲科。 다북쑥 캐어다가 둥글게 넓적하게
乾之蓀之。瀹之鹺之。 말리고 또 말려서 데치고 소금 절여
我饘我鬻。庶无他兮。 죽 쑤어 먹을밖엔 달리 또 무얼하리. (정약용)

3장으로 되어 있는 정약용의 <采蒿>의 1장이다. 여기서 흉년을 당해 다북쑥을 캐어 연명해야 하는 당대 농민의 모습이 나물캐는 한 여인에 의해 전형화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의 서술자가 작가가 아닌 여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작가가 숨고 다른 이가 서술자가 됨으로써 표현의 사실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사실 <전간기사> 전체를 통해 작가의 서술이 직접 나타나는 곳은 <有兒>의 마지막 부분뿐이다. 이처럼 정약용은 자신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것들을 소재로 하여 시를 쓰되 자신을 문면에 나타내지 않는 방법으로 등장인물들의 전형성을 그렸던 것이다. 이런 점은 다음 <拔苗>의 2-3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www.kci.go.kr

有女蓬髮。箕踞田中。　봉두난발 여인 하나 논바닥에 주저 앉아
放聲號咷。呼彼蒼穹。　푸른 하늘 우러러 대성통곡 하는 말이
忍而割恩。拔此稻苗。　“차마 어이 정을 끊어 이 볏모 뽑을손가”
盛夏之月。悲風蕭蕭。　오뉴월 한 여름에 슬픈 바람 불어오네
芃芃我苗。予手拔之。　“우거진 나의 모를 내 손으로 뽑다니
蹉蹉我苗。予手殺之。　총총한 나의 모를 내 손으로 뽑다니
芃芃我苗。蘸之如莠。　우거진 나의 모를 잡초처럼 뽑다니
蹉蹉我苗。焚之如槱。　총총한 나의 모를 땔감처럼 태우다니”(정약용)

이 역시 하늘을 원망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 당대 농민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전형성이란 궁극적으로 작품의 개연성, 다른 말로 실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士의 입장에서 주위의 세계 곧 수고롭게 생을 영위해가는 민중들의 삶의 양상에도 시선을 돌리게 되고, 그들의 시각에서 시를 쓴다는 사실은 일단 작가의 사실주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원철, 2005)

老妻强顔語。　늙은 아내 억지로 얼굴대해 말하는데,
進退無完裙。　나고 듬에 온전한 치나 하나 없다네.
喫粥動一盌。　마시는 죽은 겨우 한사발인데,
釀錢踰百文。　거두는 돈은 100전이 넘는다네.
所願卽棄置。　제발 내버려두기 바라노니,
空腹去耕耘。　굶고라도 김매려 가려네. (이학규)

이처럼 서술자가 곧 형상화되는 인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는 전형적 인물 이외에 정약용과 이학규의 한시에서는 부패한 관리층 이른바 탐관오리의 모습이 농민들의 한탄 가운데 전형화 되기도 한다.

縣官有帖。蓩勿汝憂。　고을 원님 첩을 내려 “메밀 종자 걱정 마라
我從察司。將爲汝求。　감사님께 말씀 드려 너희들께 구해 주리”
我信其言。旣耕旣耨。　우리들 그 말 믿고 논 갈아 엎었더니
蓩不我予。而督我尤。　메밀은 주지 않고 우리 허물 탓하면서
汝不播蓩。我則有罰。　“메밀 심지 않으면 너희들께 벌 주리라
白棓朱杖。汝膚其割。　흰 몽둥이 붉은 곤장 너희 살점 벗겨지리.”(정약용)

메밀 종자를 착복하고 오히려 농민들을 괴롭히는 당시 부패한 관리들의 위선과 만행을 실사하였다. 이런 관리들에 대한 분노는 자연적 조건이 어려워지면 이에 비례하여 더욱 커져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豺狼>에 이르면 승냥이와 이리에 비유되기에 이른다.

豺兮虎兮。不可以語。　승냥이여, 호랑이여! 말한들 무엇하리
禽兮獸兮。不可以詬。　금수같은 놈들이여 나무란들 무엇하리
亦有父母。不可以恃。　사또 부모 있다지만 그를 어찌 믿을 건가
<중략>
父兮母兮。粱肉是啖。　부모여, 사또여! 고기 먹고 쌀밥 먹고
房有妓女。顔如菡萏。　사랑방에 기생 두어 연꽃같이 곱구나. (정약용)

www.kci.go.kr

府主坐堂時。　부주(수령)는 편안히 앉아 있는데,
顔色殷紅滋。　얼굴색이 꽤나 불그스레 하네.
鼻息每紆長。　콧김도 길게 거드름 떨면서,
號令數改爲。　호령은 제멋대로 바뀐다네.
府主一何悲。　부주는 어찌 그리 즐겁기만 하며,
愚頑一何悲。　우리 신세는 어찌 그렇게 서글프더냐.
愚頑長辛苦。　우리는 쓴 고통만이 계속 되는데,
府主長甘飴。　부주는 달콤한 세월만 누린다네. (이학규)

시대가 어려울 때 부패한 관리층은 일반 백성의 일차적 원망 대상이 됨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는데, 정약용의 한시에서는 특히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관리층을 농민의 입장에서 전형화, 이를 통렬히 규탄함으로써 그 폐단의 시정을 국가에 요구했다.

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실핀 것과 같이, <전간기사>와 <기경기사>에 나타나는 전형적 인물은 서술자=전형적 인물로 볼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의 농민과 서술자가 아닌 정형적 인물인 부패한 관리로 볼 수 있다. 농민과 관리라는 두 유형의 전형적 인물은 서로 대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조선 사회 전반적인 인물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어도 <전간기사>와 <기경기사>의 경우 그 인물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 인물이 농민과 관리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들에 적합한 전형적 환경이 제시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들의 전형적 환경을 궁핍한 당시의 농촌의 모습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전형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 인물의 행동은 당시의 독자들에게 생생한 감동을 주는데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본다.

東家磈礧。西家磈礧。　동쪽 집이 들들들　서쪽 집이 들들들
熬麥爲麩。磨之紛紛。　보리 볶아 죽 쑤려고　맷돌소리 요란하네
有麩不箠。有麩不揚。　체질도 하지 않고 밀기울도 불지 않고
粥之爲麩。塡此孝腸。　그대로 죽을 쑤어 주린 창자 채우지만
噯腐喬酸。爲暝爲眩。　썩은 트림 신 트림　눈앞이 어질어질
日月無光。天地旋轉。　해도 달도 빛을 잃고 하늘 땅이 빙빙 도네. (정약용)

<熬麩>의 1장이다. 끼니 잇기가 힘든 현실, 이것이 정약용이 처했던 농촌의 모습이요,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다. 이런 비참한 모습의 농촌이 당대 우리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임은 현재의 독자라도 마땅히 가슴 쓰리는 아픔인 것이다. 이처럼 정약용은 가난에 시달리는 농촌을 전형적 환경으로 하여 그의 시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2) 묘사의 디테일성

묘사의 디테일성이란 세부 묘사의 사실적이고 정밀한 성격을 이름이다. 우선 정약용은 그의 한시에서 소재나 시어를 대폭적으로 넓혀 선택 사용하였다.

采蒿采蒿。匪蒿伊萩。　다북쑥 캐네 다북쑥 캐네　다북쑥이 아니라 제비쑥이네.
藜莧其萎。慈姑不孕。　명아주 비름나무 다 시들었고　소리나물 떡잎은 그대로 말랐네.
芻槱其焦。水泉其盡。　풀, 나무 타 타고　샘물까지 말랐네.

www.kci.go.kr

田無田靑。海無蠭蜃。 논가엔 우렁이 마저 없어지고 바다에도 조개, 소라 사라져 버렸네. (정약용)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약용은 여타의 한시작가들과는 구별되게 소재나 시어를 폭넓게 사용했다. 그리고 이런 폭넓은 소재로 장면 묘사를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熬麥>에 부패한 관리의 집을 묘사한 대목에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다.

棟宇隆隆。園林鬱鬱。 으리으리 큰 집에다 정원 수목 우거져서,
有松有竹。有柹有栚。 소나무 대나무에 감나무 돌밤나무.
褫有絲衣。閣有銅盆。 옷걸이엔 명주옷 찬장엔 놋그릇.
牛寢其牢。雞栖于桀。 외양엔 소 누웠고, 횃개에 닭 깃들었네. (정약용)

府使去府日。 부사가 김해부를 떠나는 날,
端肅善威儀。 단정한 자태에 위엄이 서려 있네.
純緣獺皮屐。 색실로 수놓은 수달피 가죽 신발에,
煖箑靑織絲。 비단으로 만든 훈풍이는 부채.
轎前吹六角。 가마 앞에서 큰 뿔피리 불어대고,
靑蓋風飛飛。 푸른 덮개에는 바람이 일어나네. (이학규)

위와 같이 시어의 대폭적인 확장은 서사시의 갈래적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사설적 특성이 많이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묘사의 디테일화에서 큰 일익을 담당한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점점 발전하여 방면의 색채적 묘사에까지 이르는데, 한시라는 근본적 장애 요소를 생각한다면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다.

稻苗之生。嫩綠濃黃。 모판에 볏모 자라 연한 초록 짙은 황색.
如綺如錦。翠熒其光。 비단 폭을 깐 것 같이 푸른 빛 은은하네. (정약용)

이런 한자의 함축성을 최대한 이용한 서경적 묘사는 시경체의 4언시로 훌륭한 서사시[9]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고 있다. 요컨대, 정약용은 소재·시어의 다양화를 통한 묘사의 세밀성으로 하여 인물과 환경의 전형성을 공고히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작품군의 구조적 고찰

작품의 구조를 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더구나 여러편으로 구성된 작품을 포괄 할 수 있는 구조를 찾기는 더욱 그러하다. 그만큼 작품 개개가 나름의 개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여기서 <田間紀事>와 <己庚紀事>의 구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가의 인식에 접근해 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가 <田間紀事>와 <己庚紀事>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의 모습을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田間紀事>와 <己庚紀事> 전체의 구조를 규정해 본다면 '대

9) 우리에게는 일찍이 이규보의 <동명왕편> 등 훌륭한 서사시의 전통이 있었다.

www.kci.go.kr

립적 구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대립이라 함은 물론 전형적 농민과 전형적 관리 사이의 대립을 말한다. <田間紀事>와 <己庚紀事>에서 농민들을 궁핍하게 몰고 있는 것은 자연적 재해와 관리들의 수탈이다. 자연적 재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관리들의 수탈과 부패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물론 모든 작품에서 이런 대립적 구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田間紀事>와 <己庚紀事> 작품을 총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작가들이 농민의 입장에 서 있음은 물론이다. <전간기사>의 경우, 사실 직접 작가 자신이 문면에 나서서 그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은 <有兒> 마지막 장 뿐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앞서 지적한 대립적 구조의 성격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哀此下民。喪其天彝。　슬프다, 이 백성들 본성마저 잃었구나.
伉儷不愛。慈母不慈。　부부간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제 자식을 돌볼 수 없네.
昔我持斧。歲在甲寅。　갑인년에 내가 암행어사 되었을 때,
王眷遺孤。毋俾殿屎。　임금님 당부가 고아를 보살펴 고생없이 하라고 부탁했건만,
凡在司牧。毋敢有違。　벼슬하는 사람들 감히 이 말 어길소냐. (정약용)

여기에서 정약용은 왕-관리-백성의 세 단계의 구분을 통해 왕의 뜻을 따라 관리가 자기 책무를 깨달아 관리와 백성 사이의 대립을 해소할 것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당대 현실의 모순과 그 관계의 해결을 관리들의 자기 반성에 맡겼고 여기에 그의 한계가 있다. 즉 그는 현실의 모순을 정확히 볼 수는 있었으나, 그 해결의 실마리를 유교적 테두리 내에서 구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 못했다. 소위 실학이 성리학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대략적으로나마 정약용의 <田間紀事>와 이학규의 <己庚紀事>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사실주의적 성취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정약용의 文以載道論은 應事接物의 사실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그는『詩經』의 언어를 비판적 언어로 인식하여 風을 풍자, 풍간의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창작의 기본 근저를 이루었다. 이학규의 경우도, 정약용의 영향으로 사실주의적 문학관의 자장내에 있었다.

둘째, <田間紀事>와 <己庚紀事>에 나타난 사실주의적 성격은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인물과 환경의 전형성'과 '묘사의 디테일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田間紀事>와 <己庚紀事>에는 궁핍에 직면한 농민의 모습과 부패와 허위의식에 가득찬 관리의 모습을 대립적으로 그려내었다. 이런 대립 양상은 작품의 구조 및 주제를 보여주는 주요한 좌표가 된다.

정약용과 이학규의 한시는 그 종류와 양이 대단히 방대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논의는 그 한 특질의 규명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점은 이 논의의 한계일 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연구와 논의를 기대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연구가 뒷받침 될 때 아울러 실학파 문학의 위상도 그 본연의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상홍,『다산 정약용 문학 연구』(단국대학교 출판부, 1985)
김욱동,『리얼리즘과 그 불만』(청하, 1989)
김윤식,『한국근대문학사상사』(한길사, 1984)
김흥규,「조선 후기의 문학」,『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김흥규,『조선 후기의 시경론과 시의식』(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2)
박무영,『정약용의 시와 사유 방식』(태학사, 2002)
백원철,『낙하생 이학규 문학 연구』(보고사, 2005)
사회과학원,『우리나라 문학에서 사실주의 발생·발전 논쟁』(사계절, 1989)
송재소 역,『다산 시선』(창작과 비평사, 1981)
송재소,『다산 시 연구』(창작과 비평사, 1986)
심규수,『유배지 역사 기행』(집현전, 1995)
여균동 역, 스테판 코올 저,『리얼리즘의 역사와 이론』(미래사, 1986)
이우성,『한국의 역사상』(창작과 비평사, 1982)
이경덕 역, 테리 이글튼 저,『반영이론과 생산이론』(까치, 1986)
이현석 역, 伊東 勉 저,『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세계, 1987)
임형택 편역,『이조시대 서사시』(창작과 비평사, 1992)
장사선,『한국 리얼리즘 문학론』(새문사, 1988)
조동일,『한국문학사상사시론』(지식산업사, 1978)
조동일,『한국문학통사』3권 (지식산업사, 1984)
진재교,『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소명, 2001)
최신호,「정다산의 문학관」,『한국한문학연구』1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76)
한우근 외,『정다산 연구의 현황』(민음사, 1985)
한창훈,「茶山 漢詩의 사실성 연구」,『백록어문』8집 (백록어문학회, 1991)
홍이섭,『정약용의 정치, 경제 사상 연구』(한국연구도서관, 1959)

A Review of Reality in <Jseongan Gisa> and <Gigyeong Gisa>

Han, Chang-hun

We can refer to Jeong Yak-yong (1762-1836) and Lee Hak-gyu (1770-1834) as representative figures on the side of practice of realistic poetic recognition in the late Joseon. Jeong Yak-yong has been evaluated as a great scholar who integrated Sil-hak ‘practical scholarship’ on one hand, and occupies a great position in the history of the late Joseon’s ideology on the other.

Lee Hak-gyu also underwent life in exile for 34 years, and was influenced considerably on the poetic side by Jeong while exchanging with him. Of his works, those dealing with the miserable aspects of farmers occupy the central positions. He also created <Gigyeong Gisa> as a reply to

www.kci.go.kr

Jeong's <Jeongan Gisa>.

As the two works are composed of narrative contents in a Sanbaipian-style form, they take reality as one of their most prominent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they figure aspects of farmers facing penury, and of bureaucrats full of corruption and vanity. In addition, as narrative poems, they are understood as having a structure of confrontation. However, considering them through thematic examination, they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cannot solve all the problems with the reality at that time.

The two authors' have many classic Chinese poems. Hence, we cannot account for the entire aspects of their works with only a few fragments. It is another task to review other works by these two authors.

<Key Word>
realistic poetic recognition. Sanbaipian-style form. prominent characteristics. aspects of farmers facing penury. a structure of confrontation.

www.kci.go.kr